

광주폴리

“친환경 재활용 건축으로 ‘순환하는 폴리’ 추진”

제5차 ‘광주폴리’ 배형민 총감독 기자간담회, 추진 방향 발표 ‘순환’·‘기존 폴리와의 연계’·‘지역과 결합’... 시민참여 강화

지난 2011년 처음 설치된 ‘광주폴리’는 광주의 문화 자산이다. 지금까지 13개국 작가들이 참여해 31개의 다양한 폴리를 제작했고 최근에는 리뉴얼 작업을 통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변화도 모색 중이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추진되는 제5차 광주 폴리의 핵심은 ‘순환’, ‘기존 폴리와의 연계’, ‘지역과 결합’이다.

제5차 광주폴리 총감독으로 선임된 배형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가 27일 (재)광주비엔날레 제문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폴리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배 감독은 광주와 인연이 깊다. 2011년 4회 디자인 비엔날레 수석 큐레이터로 참여, 승효상 당시 예술감독이 진행했던 제1차 폴리 작업을 함께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원으로도 4년간 활동했다.

“11년간 폴리가 처음 생겼을 때 작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총괄 기획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폴리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와 지금까지 제작된 폴리 전체를 브랜드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외에 광주폴리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게 필요하죠. 국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광주 지역성과 더불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보편적인 주제가 필요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들도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배 감독은 세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 ‘순환 폴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폴리에도 입되는 건축 재료와 시스템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성한다는 제안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순환경제 프로그램과 연계된 재활용 건축을 개발해보려합니다. 친환경적인 재활용 건축시스템으로 ‘순환하는 폴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순환 경제를 건축적 폴리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숙제입니다. 그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디자이너, 전남지역 연구소, 건축가, 환경단체와의 협업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남 지역 업체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었네요. ‘즐거움 발견’입니다.”

배 감독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강조했다. 재활용 소재를 찾고, 이용방법을 교육하고, 폴리를 짓는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함께 폴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5차 폴리는 재단이 30여개 폴리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통한 ‘광주폴리 돌레길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서 이 작업과도 맞물려 진

행된다. “전당과 인근 폴리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새로운 실험을 해보려합니다. 기존의 폴리과 새롭게 진행되는 폴리를 연결하고, 또 ‘순환’을 기조로 한 프로그램을 기존 폴리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배 감독은 직접 사용하는 폴리, 예술관광 도시와 밀착된 폴리 등을 강조했다. 5차 폴리의 정식 주제와 설치 장소, 참여 작가 등은 올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일부 작품의 경우 기존의 ‘고정화된’ 작품 대신 ‘이동형 폴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후 문제 등은 전 세계 건축가 등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접촉하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나 건축 사무소, 국내 연구소를 역시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공법에 대한 고민들이 깊은 터라 그런 논의와 실험이 가능한 광주 폴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좋은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감독은 폴리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시대가 변하면 폴리의 의미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폴리의 경우 도시재생이 핵심요소였다면 지금의 폴리는 작지만 도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시민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장치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폴리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작은 건축적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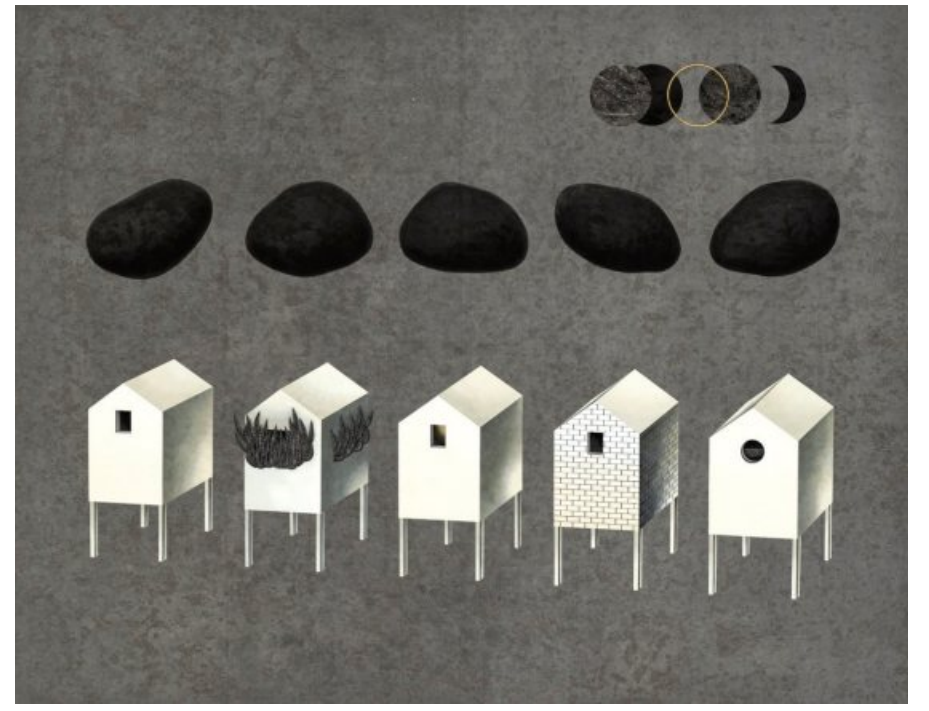


제5차 광주폴리 배형민 총감독

는 게 폴리의 생명력이구요.” 서울대를 거쳐 MIT 공과대학 대학원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배 감독은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제14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큐레이터를 맡았다.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기후미술관’ 전을 기획, 2021 레드닷 디자인 본상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5차 폴리는 기존의 광주폴리와 연계해 진행된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설치된 폴리.



‘각자의 방식’

윤준영 작가 ‘익숙한 듯, 낯선’

28일~8월16일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광주 신세계갤러리는 지난 1996년부터 지역의 젊은 작가 발굴·지원을 위해 신세계미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개인전에 초대받아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보일 기회를 얻는다.

지난 2019년 제20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윤준영 작가 초대전이 28일부터 8월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익숙한 듯, 낯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윤 작가는 수상 이후 작업된 신작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작가는 사회를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을 먹과 풍토로 구성된 무채색의 화폭에 풀어낸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 복잡한 사회체계 앞에서의 무력감, 사회적 유대의 상실감 등의 비가시적인 사유를 공간 안에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우거진 수풀, 거대한 달과 같은 자연물이 그의 작품에서 돋보인다. 통제할 수 없고 그 안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위압감을 사회 내에서 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가는 부단히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는 감정과 사유를 작품으로 서술한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보이지 않는 눈과 응집된 것’, ‘believer’ 연작 또한 어두운 색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 내면엔 긍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살아가며 체득되는 경험과 감정들이 우리들의 내면에 축적되어 성숙해지고, 불안함 속에서도 일말의 기대와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미술제 심사평에서 윤준영 작가의 작업은 “인간이 부재한 풍경을 통해 인간의 고독과 불안을 암시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며, “그리 길지 않은 연력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뚜렷한 양식을 일구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윤 작가는 광주화루 공모전 입선, 남도문화재단 주최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선정작가상을 받았으며 쓰시마아트퍼티지아 프로그램 참여작가,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카르멘’

광주시립오페라단, 8월13~14일 ACC 예술극장2

바리톤 공병우, 30일 성악 마스터 클래스

이에서 인기가 높은 ‘카르멘’은 프랑스 작가 메리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9세기 스페인 집시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1875년 초연 당시 강렬한 충격을 선사한 ‘카르멘’은 스페인 풍의 화려한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이번 공연은 카르멘의 정열과 사랑 이야기를 친절한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비제가 작곡한 ‘카르멘’은 특히 사람들에게 친숙한 다양한 아리아가 인상적이다. ‘사랑은 길들이지 못하는 새(일명 허버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이 대표적이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간주곡도 인상적이다.

연출로는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한 이경재 예술감독이 참여하며 전남대 박인욱 교수가 지휘를 맡아 (사)카메라타 전남을 지휘한다. 솔리모 페리합창단도 출연한다.

카르멘 역은 김하늘·김정미, 돈호세 역은 이석늬·최원희가 맡았으며 에스카미오 역으로 조재경·공병우, 미카엘라 역으로 이



소정·박하나가 출연한다. 그밖에 정은지·신은선·양은승·허지성·최기수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번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과 연계한 성악 마스터클래스도 열린다.

미래 세대 성악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정기공연과 연계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지난 3월에는 ‘미술피리’에 출연한 세계적인 성악가 김우경을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마스터 클래스에는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에서 에스카미오 역을 맡은 공병우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서울대를 거쳐 마르세유 오페라 센터를 수료하고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 졸업한 공 교수는 서울 국제콩쿨 1위, 파리콩쿨 1위 등을 수상했으며 정명훈이 지휘하고 안젤라 게오르규가 주역으로 참여한 ‘라보엠’ 무대에 섰다.

이번 클래스는 강사와 참여자 1대 1 개인레슨으로 진행되며 대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영상심사를 통해 최대 6명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마감은 28일.

티켓은 티켓링크,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가능하다. 공연 티켓 가격 7만원·5만원·3만원·1만원. 문의 062-412-250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엄다미 작 '서로를 물들이는 빛'

일러스트, 엄다미 ‘서로를 물들이는 빛’ ‘ACC 민주·인권·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전’ 대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주최한 ‘2022 ACC 민주·인권·평화 일러스트&그림일기 공모전’ (공모전)에서 엄다미의 ‘서로를 물들이는 빛’과 한소정의 ‘평화가 지켜낸 꿈꾸는 미래’가 각각 일러스트와 그림일기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CC는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선정, 2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WE ARE 5·18’ (맹화영 작)과 ‘평화를 원해요(송재희 작)’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

았으며 수상자들에게 모두 모두 1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159편이 접수됐으며 향후 이들 작품은 채널 ACC·미디어월·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지난 2018년 시작된 공모전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